

## “도민과 함께 체감 성과 만들어가자”

### 도, 출연기관 현장 방문 소통 나서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김관영 도지사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을 방문해 핵심과제 추진상황과 주요 사업 실행계획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도정 핵심사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기관과 도가 함께 도민 체감 성과를 만들어가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김 지사는 사회서비스원 전북여성가족재단, 평생평생교육진흥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을 차례로 찾아 기관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을 확인했다.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운영 현황과 복지서비스 품질관리, 현장 인력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전북형 복지 안전망의 운영 실태를 살폈다. 이어 여성가족재단에서는 여성·가족 정책 연구와 새일센터 운영, 가족지원서비스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기관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장학금 지원과 평생교육 사업, 서울·전주 장학숙 운영 현황을 점검했으며, 특히 서울장학숙 노후시설 보수 필요성과 중장기 시설개선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어 바이오융합산업진흥



10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도 산하 출연기관인 전북사회서비스원을 방문해 기관별 핵심과제 추진상황과 주요 사업 실행계획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원에서는 농생명 기업 지원 사례와 관로 개척 현황을 공유하고, 헬프산업·케어푸드·그린바이오 등 전북 미래 신산업 준비 상황과 기관의 역할을 사례 중심으로 확인했다.

김 지사는 “출연기관은 도정 정책이 현장에서 구현되는 최일선”이라며 “기관의 성과가 곧 도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실행에 더욱 힘써 달라”고 말했다. 또한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지사는 11일 전북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을 방문해 정책 연구와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19일에는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권역초융합진흥원, 전북개발공사를 차례로 찾아 기관별 현안과 실행계획을 공유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 우석대 약학과, 제77회 약사 국가시험 전원 합격

우석대학교 약학과가 약사 국가시험에서 전원 합격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약학 교육의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약학과 졸업예정자 38명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주관한 ‘제77회 약사 국가시험’에 전원 합격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험은 지난달 23일 시행됐다.

이번 시험은 약사 국가시험에 처음으로 CBT(컴퓨터 기반 시험) 방식이 도입된 해로, 시험 방식 변화에 따른 수험생들의 부담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석대 약학과는 새로운 평가 환경 속에서도 응시자 전원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국가시험에는 전국에서 1,897명이 응시해 이 가운데 1,747명이 합격했으며, 전국 평균 합격률은 92.1%로 집계됐다. 우석대학교는 이를 크게 웃도는 100% 합격률을 기록했다. /오상근 기자



### 전주상의, 설 명절 지역 복지시설에 위문금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설 명절을 맞아 10일 전주상공회의소에서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위문금을 전달하며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날 전주상공회의소는 선녀머쉬복지재단과 소화진달네 집 임마시탈요양원 등 지역 사회복지시설 3곳에 위문금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김정태 회장을 비롯한 전주상의의 관계자들과 각 사회복지시설 대표가 참석해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오상근 기자

## 민주평통 전북, 올 상반기 사업계획 심의·의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부의장 김영복)는 10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1분기 전북지역운영위원회’를 열고 올 상반기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2026년도 상반기 전북지역회의 및 도내 시·군 협의회별 주요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사무처 주요 업무 보고 △2026년 상반기 전북지역회의의 사업계획(안) 심의·의결 △지역협의회별 사업계획 협의·조정 및 통합 △기타 현안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각 협의회별 우수 사업 성과를 공유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성공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도내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영복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2기 민주평통은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이라는 가치 아래 출범했다”며 “올해는 이러한 가치들이 지역 곳곳에서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져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지역의 다양한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협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상반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오만호 기자



### 전주교도소, 설 명절 맞아 지역사회 나눔 실천

전주교도소(소장 윤순봉)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 앞장서며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

전주교도소는 10일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문은 명절을 앞두고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주교도소는 장애인복지시설 ‘소화진달네집’과 아동복지시설 ‘삼성유년빌’을 찾아 위문금과 함께 생필품 등 다양한 물품을 전달했다. 관계자들은 시설 이용자들이 보다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성을 담아 준비했다.

한편 전주교도소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나눔미장회’, ‘사랑애 연탄나눔’,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오만호 기자



### 부안군의회, 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 현장 방문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에서는 10일 부안 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해당 부지에서 발생한 다량의 폐기물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고 현장에 매립된 채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군민들 사이에서는 폐기물을 매립해 환경 오염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부안군의회는 지난달 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폐기물 매립 관련 특별위원회(위원장 박태수)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날 특위는 공사 추진 과정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으며, 향후 관련 부서의 업무보고를 통해 사업 경과와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박병래 의장은 “이번 특위 활동은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회는 군민의 우려를 엄중히 받아들여 객관적이고 책임 있는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 한옥마을 차없는 거리 차량통제원들, 이웃돕기 성금 전달

전주한옥마을사업소는 10일 한옥마을 차량통제 근무자(공유차 운송원 1명 포함) 13명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 50만 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매주 주말과 공휴일에 차량통제원으로 근무하면서 연간 1300만 명 이상이 찾는 한옥마을 방문객의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차 없는 거리’ 운영 안내 및 문화시설 등의 관광 정보 안내 등을 통해 한옥마을 관광객들에게 따뜻하고 친절한 첫인상을 심어 왔다.

특히, 이들 대부분이 한옥마을에서 30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전통차 안전 운행을 위한 캠페인 참여와 한옥마을 청소 및 취약지 제설작업 등 한옥마을의 숨은 봉사자로 활동해 왔다.

한 차량통제 근무자는 “설 명절을 맞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었다”면서 “한옥마을 차량 통제원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를 아껴, 작지만 이웃돕기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권희성 기자



임청진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장은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따른 어려운 시기에 한옥마을 차량통제원들의 이웃사랑에 대한 아낌없는 정성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 김제시, 2026년 설맞이 국토대청결운동 펼쳐

김제시는 2026년 희망찬 새해를 맞아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0일 설맞이 ‘국토대청결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청결은 지역 내 사회단체, 시민단체,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시민들에게 깨끗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고 자원순환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청결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졌으며, 유동 인구가 많은 시내 주요 도로변과 터미널, 전통시장 주변은 물론, 상습 투기 지역과 하천변에 방치된 생활쓰레기를 집중 수거했다.

특히 겨울철 비파에 날려 가로수 아래나 배수구 등에 쌓인 낙엽 등을 집중 수거함으로써, 상습 침수 구역의 배수를 원활히 하고 도시 미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주력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설맞이 국토대청결운동에 동참해주신 시민과 단체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깨끗한 가로환경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반이자 ‘전북권 4대 도시’로 도약하는 김제시의 얼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 한 해도 지속적인 환경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청정 김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남원시보건소,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남원시보건소는 최근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라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최근 호흡기 감염병 의심 환자 중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40.6%로, 전주 35.7%보다 약 4.9%p 상승한 수치로, B형 인플루엔자는 고열, 기침, 두통, 근육통 등을 유발하며, 소아는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미 A형 인플루엔자에 걸렸던 경우라도 다시 B형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수 있으며 특히, 만 6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폐렴 등 합병증의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검출률이 증가하는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이번 절기 백신주와 매우 유사하여 예방접종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어린이,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정희연 팀장은 시민들에게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인플루엔자 백신 미접종자는 지금이라도 의료기관을 방문해 예방접종을 하길”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농협 순창군지부, 순창군과 사인머스켓 나눔

농협 순창군지부(지부장 신중철)는 지난 9일 순창군내 취약계층 지원 및 우리농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한 사인머스켓 나눔행사를 순창군과 함께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영일 순창군수 및 군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전북공동모금회를 통해 기탁된 사인머스켓은 11일부터 순창군내 복지시설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농협순창농업농촌지원부 주관·후원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행복나눔’의 주제 하에 우리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 지원과 설을 맞아 지역사회에 대한 따뜻한 온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순창=이양원기자



### 부안 상서면 지사시험, 사랑의 떡국떡 나눔 행사

부안군 상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박춘섭)는 지난 9일 상서면 상생문화복지센터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설날맞이 사랑의 떡국떡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명절을 앞두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되어 떡국 떡과 계란 김 등 떡국 재료들을 정성껏 준비해 관내 독거어르신 130여명에 위문금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추진됐다. /부안=김석진 기자

